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해양치유 프로그램 다채

모래찜질 · 다시마 풀장 · 비치바스켓 등 8종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인증하는 블루 플래그를 획득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부터 한 달 간 모래찜질 등 8종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모래찜질을 비롯해 다시마 풀장, 비치바스켓 체험,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필라테스, 해변댄스, 명상 등이다.

다시마 풀장은 백사장에 에어풀장을 설치하고 당일 날 채취한 싱싱한 다시마를 풀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피부에 붙이는 체험으로 가정이나 해수탕에서 즐겨하는 다시마 복욕을 대형 풀장에서 할 수 있다.

모래찜질은 햇볕에 따끈하게 데워진 모래를 덮고 음악을 들으며 모래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이다.

비치바스켓은 독일 등 유럽 해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나 국내에서 최초로 명사십리 해변에 설치하여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멍 때리기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도 백사장에서 국내 유명 강사가 지도하는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요가, 해변댄스, 명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 및 완도군청 해양치유산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드림스타트, '몸짱! 키짱! 영양제 지원사업' 추진



진도군 드림스타트팀이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몸짱! 키짱!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체·건강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불균형과 신체 발육이 부진한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양섭취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마련됐다.

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영양제를 전달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의 불균형 식습관과 영양상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드림스타트팀은 지난 1일 지

역사회 지원연계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대표 박병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상비약품과 영양제·시럽 구입비의 20%를 3년간 후원 받는다.

광주광역시 박병훈 대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대섬에 '어촌체험공원' 조성

망갈마를 신비의 바닷길, 대섬에 어촌체험공원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10억원(국비 60%)을 투입해 송지면 대섬리 대섬 일원에 어촌체험공원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관광철을 앞두고 이날 개장한 체험공원은 기존의 낚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바닷가와 해안가를 정비해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바닷가 생태환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름다운 전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캐릭터 조형물 등을 활용한 바다생물 포토존, 놀이 시설인 흔들그네 등도 설치해 망갈마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들러 갈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샤워실과 관리사무소, 야외테라스 등을 갖춘 2층 건물을 신축해 조개잡이 체험객 등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건물에는 직접 잡은 조개를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운영된다.

망갈마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섬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곳으로, 하루 두 차례 바다가 갈라지며 1km 가량 드러나는 갯벌에서 조개잡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망갈마의 아름다운 낙조 등 수려한 바다경관과 함께 해산물도 풍성한 어장으로 지난해에도 50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있는 조개잡이 체험장으로 꼽히고 있다.

영암군,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진

영암군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에서 사용중인 노후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대를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이며, 교체대상 친환경보일러는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 제품)와 전기보일러,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콘덴싱 기종이 적용된 기종보일러도 가능하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비교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1%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일러 1대당 연간 13만원 상당의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보일러 판매대리점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1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여성리더 스피치 교육 실시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진자)에서는 신안군청 1004회의실에서 지난 8일 관내 여성리더 20여명 대상으로 "여성리더 품격 향상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리더들에게 스피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신감을 부여하며 회원간 원활한 소통과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7월 8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매월 한차례씩 총 5회(1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말하기 기법(스토리텔링, 설득력과 갈등 조정), 목소리 연출과 바다레크리, 회의 진행 스피치 기법 등 단계별 실습 위주로 이뤄진다.

박우량 군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리더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기성 기자

무안 단호박,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각광

무안군에서 재배된 싱싱하고 영양가 만점인 단호박이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요즘 무안군에서는 본격적인 단호박 수확철을 맞아 농가에서 수확한 단호박을 지정된 수매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농가들의 차량행렬이 줄을 이루고 있다.

무안군 단호박 생산농가는 350호, 재배면적은 187ha로 금년 수매되는 물량은 약 4,500톤이다.

현재 단호박 생산자법인은 2곳으로 무안읍, 환경면을 주 사무소로 두고 있으며 생산된 단호박은 생산자법인과 계약된 업체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

다. 생산된 단호박은 kg당 750원에 수매되고 있으며 1마지기(660㎡)에 90~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단호박의 대부분은 대형마트, 인터넷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나 단호박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생산자 법안에서 직접 일본, 대만 등에 수출을 통해 국내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단호박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읍면 1특화작물지원' 품목으로 정하고 단호박 고품질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 법안에게는 육묘장·저장

시설을 참여농가에게는 시설하우스 및 덕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대표적 품목인 양파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새로운 대체작물인 단호박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단호박의 대표적 효능인 베타카로틴은 애호박, 늙은 호박에 비해 9~10배 많으며,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물질인 카로노이드의 일종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여러 암의 발생을 억제하며 심혈관 질환의 인자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군, 관광 시설물 일제 안전 점검

주요 관광지 10개소 등 총 19개소 대상 실시

강진군은 7월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최근 관내 관광 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 점검은 가우도, 다산초당, 무위사, 백운동 원림 등 주요 관광지 10개소와 일반 유원시설 2개소, 일반 야영장 7개소 등 총 19개소에서 진행됐으며 관광객 편의 증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가족 단위 휴가객이 많은 야영장을 중심으로 시설 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클램핑 천막 방염처리, 클램핑 내 화포 또는 펠트 난로 설치 금지 등 야영장업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안

전한 야영장 운영지도 및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일반 유원시설 내 슬라이드 등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군은 경미한 지적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보수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에서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